

선행에도 실적이 필요했나... 지적에 하반신 마비 의인 '의사상자' 지정



news1
KOREA

이상훈 기자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돕고 싶어도 전례가 없어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오랜 시간 친분을 쌓아온 지방경찰청의 교통수사 담당 경찰관과 식사를 하던 중 아리송한 얘기를 들었다. 피의자가 없어 처벌이 불가한 교통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있다. 하지만 그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선의로 나선 정황이 파악됐지만 선행의 범위를 입증하기가 난감하고, 그 피해자는 의식불명에 하반신 마비 상태라고 했다.

곧장 관할 경찰서 등을 상대로 취재에 돌입했다. 올해 1월24일 오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자신이 운영하던 반찬가게로 아내와 함께 출근하던 양명덕(68) 씨가 당한 사고였다.

사고 당일 출근하던 양 씨 부부의 옆으로 1톤 포터 차량이 스르륵 지나갔다. 양 씨의 아내는 “여보, 저 차 운전자 아픈가 봐. 차가 다가가서 깨워봐”라고 말했다. 양씨는 서서히 앞으로 가던 차량에다가 차창 문을 두드렸다. 운전자는 반응이 없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니 차량에 사람이 없었다.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시동을 켜 채로 정차하고 차 밖으로 나간 상태였는데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언덕길에서 내리막으로 서서히 차량이 미끄러졌던 것이다. 당시 도로에는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등 다른 차들이 뒤따르던 상황이었다. 자칫 다중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양 씨는 차량 조수석 옆에서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달려가 차량에 올라탔다. 그러나 양씨가 탑승한 순간 차량은 내리



양명덕 씨는 평소 도시락과 팔죽 나눔, 연탄 봉사, 노인복지센터 각설이 공연 등을 해오며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해 선행을 이어왔다고 한다. 양명덕 씨 가족 제공

막길에서 가속도가 붙었고 순식간에 속도가 빨라졌다. 때마침 양 씨가 핸들을 돌려 서인지 차는 뒤집어졌다.

양 씨가 올라타 핸들을 꺾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 사고로 양 씨는 큰 부상을 당했다. 그는 척추 수술 4회, 호흡기 수술 1회, 복부 출혈 관련 수술 1회 등을 치렀고 앞으로도 수차례의 수술 일정을 감내해야 한다. 현재 의식은 돌아왔으나 이따금 저혈압 쇼크 등의 위중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뉴스1 ✓구독중

[단독] 제동 풀린 트럭 막다 하반신 마비·폐업..."보험사도 고양시도 의인 외면"



이상훈 기자

입력 2026.02.05. 오후 3:08 · 수정 2026.02.05. 오후 4:12 (기사원문)

후속 보도 제목 [단독] 제동 풀린 트럭 막다 하반신 마비·폐업...보험사도 고양시도 의인 외면

뉴스1 ✓구독중

'하반신 마비' 의인 양명덕 씨 가족 "도움 손길 시민들, 고양시에 감사"



이상훈 기자

입력 2026.03.18. 오후 5:26 · 수정 2026.03.18. 오후 5:38 (기사원문)

후속 보도 제목 하반신 마비 의인 양명덕 씨 가족 도움 손길 시민들, 고양시에 감사

그 후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사고 차량의 보험사는 ‘양 씨가 차주가 아니고, 가해를 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보험사의 입장은 강경했다. 경찰로서도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피의자가 없는 사고였다.

나는 이 사실을 그대로 기사에 담아 보도했다. 첫 기사의 제목은 <[단독] 미끄러지던 화물차 세우려다...60대 의인 ‘하반신 마비’ 위기>였다.

이 보도 다음날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북부 지역의 손해사정사 A 씨가 내게 연락해왔다. 교통사고 보험보상 관련 취재를 할 때 내가 가끔 조언을 구하던 인물이다. A 씨는 “어제 기사 잘 봤어요. 다치신분의 지인이 안타까워하면서 나한테도 조언을 구하고 사건의뢰 관련 문의를 했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A 씨로부터 양 씨 아들의 연락처를 구할 수 있었다.

내가 양 씨의 아들에게 연락하자 그는 보험사도, 지자체에서도 외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양 씨가 아내와 함께 운영하던 ‘양가찬방’은 폐업하게 됐다. 평소 양 씨가 직접 장을 보고 재료의 운반 등을 도맡았는데 아내 혼자 일하기 버거울 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의 간호를 위해 생업을 포기했다.

양 씨 아들에 따르면 양 씨는 10여 년간 홀몸노인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고 한다. 강원 속초에 거주할 때부터 봉사를 지속했으며 고양시로 이사온 후로도 봉사를 이어나갔다. 장구를 배워 노인복지센터에서 각설이 공연을 했고 도시락 나눔, 연탄 나르기 봉사를 꾸준히 펼쳤다고 한다. “아버지는 동행정복지센터

에 가서 홀몸노인을 위한 반찬 기부도 성실히 해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양 씨의 가족은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에 문의해 ‘의상자로 인정 가능 하느냐’고 물었다. 전화를 받은 실무자로 추정되는 공무원은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양 씨의 행동으로 누구의 가해를 막았고, 누구의 피해를 예방했으며, 결국 누구를 구했고, 누구의 재산을 보호했느냐를 입증하라는 안내였다.

양 씨는 늘 타인을 도와주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나는 후속으로 <[단독] 제동 풀린 트럭 막다 하반신 마비·폐업 ... “보험사도 고양시도 의인 외면”>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나의 후속보도 이후 방송사들도 CCTV 화면을 확보해 이슈는 커졌다.

얼마 후 자생의료재단(자생한방병원)에서 ‘화물차 사고 의인’ 양명덕 씨 가족에게 긴급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자생의료재단은 양명덕 의인의 숭고한 행동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금은 고양시청 및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 씨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양 씨에게 자생 흑삼 등 건강기능식품

을 무상 후원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162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해줬다.

뒤이어 당시 고양시장도 적극적 지원을 실무진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보도를 통해 양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처음 양 씨 가족이 고양시에 관련 문의를 했을 때 안내했던 민원부서 직원이 아니라, 복지부서 팀장이 가족에게 직접 연락한 뒤 도움을 줬다.

고양시는 양 씨를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로 건의했고,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양 씨를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기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도로는 차와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차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양 씨의 신속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자생의료재단이 고양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부사업본부를 통해 양명덕 씨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모습. 자생의료재단 제공

양 씨에게는 보건복지부의 보상금 1억 293만 원이 지급된다. 경기도 또한 양 씨에게 특별위로금과 매월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사고 화물차의 보험사인 S사는 현재까지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의 결정 이후 양 씨의 아들에게 연락하니 그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아셨느냐”고 했다. 그는 그간 경황이 없었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의 일 관련 후속 취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말했다.

내게 이 사건을 최초 귀띔한 경찰관이 자 친구에게 ‘양 씨가 의사상자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알려줬더니 그도 자신의 일인 것처럼 기뻐했다. 나는 “덕분에 기사로 뿌듯한 일을 한 것 같다”며 친구와 친구의 아들에게 조출한 한 끼 식사를 샀다. 🍷

뉴스1 이상홀 기자